

蘇齋 盧守愼의 「避寇錄」 研究

박병익*

〈차례〉

1. 서론
2. 을묘왜변과 출도
3. 출도이후의 행적과 교유
4. 내적 자아의 상실감
5. 결론

〈국문 초록〉

「피구록」은 소재 노수신 文集의 卷四에 실린 「入智力山 次簡齋韻」부터 「題碧波亭楹」까지의 44제 47수를 말한다. 여기에 실린 시와 기록은 소재가 진도에 유배되어 7년 만에 발발했던 을묘왜변(1555년 명종 10년) 이틀 후, 1555년 5월 13일부터 같은 해 7월 19일까지 약 67일간의 행적과 소회다.

소재는 을묘왜변으로 진도가 왜구에게 침략을 당하자 피신하면서 왜구를 물리칠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포로 돌아가니 11일 만에 출도하기에 이른다. 절도 안치된 유배객 소재는 변란 중에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고 보존함이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적소를 이탈하였다.

소재는 왜변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진도-해남-목포-무안-함평-나주-광주-순창-옥과-광주-영암-석교원-해남-진도'의 여정으로 피구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생활 중, 소재는 다양한 인물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처족인 이윤경·이준경은 당시 전라도 실세로 있었기에 피구생활에 도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감·군수 등의 관료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사문에

* 조선대학교

서의 장기 留宿, 호남 거유와의 지속적인 교류, 당풍을 선도했던 호남문인 청련·고죽과 교류 등을 엿볼 수 있다.

소재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그가 당시 왜구의 참상, 관료의 부패, 가뭄으로 인한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굴원과 같은 자세를 가진 신하가 되길 바랐다. 그렇기에 환로의 복귀, 즉 해배의 바람이 내적 지향점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소재는 내적 지향점의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

핵심어 : 노수신, 진도, 피구록(避寇錄), 을묘왜변

1. 서론

소재 노수신(1515~1590)은 灘叟 李延慶(1484~1548)의 제자이자 사위로 1543년(중종 38년)에 文科 초시, 회시, 전시에 모두 장원을 하였다. 이후 홍문관수찬, 세자시강원 司書 등을 거쳐 인종 조에는 사간원 정언, 이조 좌랑이 되는 등 순탄한 환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명종이 즉위하던 1545년 9월부터 1567년 선조에게 발탁되어 다시 환로에 나가기까지 약 22년간은 소재의 시련기였다. 을사사화(1545년)에 연루되어 소재는 파직되었고, 이후 조부의 상으로 인해 약 1년 6개월간 유배가 지연되었다가 1547년 3월 순천으로 정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전라도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소재는 9월에 절도안치로 가중되어 진도에 이배되었다.

일반적으로 16세기 양반들의 유배생활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수 관료들의 경우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 결코 생계를 걱정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꺾을 만큼의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¹⁾. 그래서 진도에 이배된

1) 沈載祐,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國史館論叢』 제92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220쪽.

소재는 鞍峙²⁾ 등의 배소에서 서당을 개설하여 후학을 가르치며 학문과 저술활동에 몰두하였다. 「沃州二千韻」, 「甲辰書筵講義」의 修正, 「夙興夜寐箴」註解, 「字訓」과 「童蒙須知」의 주해, 退溪 李滉과 「夙興夜寐箴解」의 변론, 「人心道心辨」, 「執中說」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1565(명종 20)년에 처당숙인 이준경의 상소³⁾로 그해 12월에 槐山으로 量移되기까지 19년을 진도에서 적거생활을 하였다.

소재가 진도에 유배 온 지 7년 만에 을묘왜변이 발발하였다. 을묘왜변은 1555년에 왜구가 전라도 서남해안 지역에서 약탈을 감행했던 사건이다. 이때에 행적과 감회를 기록한 것이 「避寇錄⁴⁾」이다. 문집에 실린 「避寇錄」은 44제 47수로 5언과 7언 시의 작품이 실려 있다. 작품마다 쓴 날짜와 날씨, 그리고 특기사항이 ‘序’의 형식을 빌거나, 附記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은 달량포와 이진포에서 을묘왜변(명종 10)이 발발했던 이틀 후, 1555년 5월 13일부터 같은 해 7월 19일에 귀도하여 벽과정에 돌아와 쓴 「題碧波亭楹」까지 약 67일간의 일정과 행적이다.

「피구록」은 을묘왜변의 실상, 67일간 진도와 출도 후 피구의 행로,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 등인데, 이는 당시 절도 안치된 유배객의 실상을 가늠해 보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유배객이 변란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기왕의 소재연구는 문학과 정치사상을 총체적으로 다뤘거나⁵⁾ 소재시의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시풍⁶⁾과 사상적 상관성⁷⁾ 등 총론적 관점에서 연구

2) 소재의 配所地는 진도 지산면 鞍峙에 정했으나 이웃마을 巨濟 등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3) 명종 20년 을축(1565,가정 44), 12월 2일(을축).

4) 소재의 연보에 의하면, 이때 행적을 기록한 「避寇行錄」이 있다고 하였다. 또 『蘇齋先生文集』의 卷之四에 실린 「入智力山 次簡齋韻」이라는 시에 “이 아래 47수는 을묘년 「避寇錄」에 관련 된다(按此下四十七首 係乙卯避寇錄).”고 부기하였다. 이로 보아 「避寇行錄」은 「避寇錄」과 동일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의 제명은 「피구록」으로 통칭한다.

5) 김광순, 문경현, 최승호, 「蘇齋 盧守愼 研究 -文學,政治,思想을 中心-」, 『퇴계학과 한국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원, 1989.

6) 徐守鏞, 「蘇齋 盧守愼 詩 研究」,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4. 蔡龍福, 「蘇齋

가 진행되었다. 「피구록」과 관련된 작품은 소재시를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쳤다.

필자가 「피구록」에 주목하는 것은 각론적 관점이다. 즉 을묘왜변과 연관 지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절도 안치된 유배객의 자세와 시에 형상화된 내적 세계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피구록」을 통해 유배객인 소재가 왜변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당위성으로 출도했으며, 피구생활에서 누구와 교유를 했는지, 그리고 유배객으로서 내적 자아의 지향점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2. 을묘왜변과 출도

16세기에 들어 왜인들이 三浦에서 일으켰던 삼포왜란(1510, 중종 5) 이후, 일본의 왜구는 수시로 남해안 지역에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 등을 자행하였다. 을묘왜변은 1555년 명종 10년에 왜구가 왜선 70여척을 이끌고 5월 11일에 靈巖의 達梁鎭(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와 梨津浦(현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에 상륙하여 민가를 불태우고 약탈을 자행한 사건이다. 왜구들은 5월 13일 달량성을 포위하였다가 바로 그날 함락하자, 이어 어란포로 향했다가 진도로 침입하여 진도의 남도성과 금갑성을 방화하였다. 21일에는 강진의 병영성을 침입하여 약탈과 유린을 자행하였고, 22일에는 장흥부를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24일에는 영암성을 포위하였으나 25일에 이준경이 이끄는 관군에게 패퇴하였다. 영암성의 회복은 일차적으로 왜변의 종식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왜변은 재개되었

盧守愼 詩의 研究,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3. 李承和, 「蘇齋 盧守愼의 漢詩 研究」, 檀國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3. 조희창,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채용복, 「소재시에 있어서 초세 경계예의 지향」, 『文化傳統論集』 1, 경성대학교부설향토문화연구소, 1993.

7) 辛香林, 「盧守愼 詩에 나타난 思想 研究」,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고 왜구는 27일 완도의 加里浦(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침입하고 28일에는 가리포를 함락하고 이어서 장흥군의 會寧浦(현 장흥군 대덕면 회진리)를 함락하고 다시 홍양의 鹿島(현 고흥군 도양읍 녹동)를 포위하였다. 6월 1일에는 패각하던 왜구 일부가 28척으로 홍양의 녹도진을 침입하였다가 3일에 금당도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서남해안의 일대에 왜구침탈은 일단 종식되었고, 21일에 왜선 40척 보길도로부터 제주에 침입하였으나 27일에 격퇴하여 종식되었다. 이로써 47일 동안의 왜변은 끝이 난다⁸⁾.

을묘왜변의 참상이 가장 심했던 달랑 지역 상황은 삼당시인의 한 사람이며 소재의 제자인 옥봉 백광훈(1537~1582)⁹⁾의 「達梁行¹⁰⁾」에서 엿볼 수 있다.

<前略>

當年獠虜敢不恭	그 해 오랑캐들 불경스러움을 감행하여
絕徼孤城勢一髮	외딴 변방 성은 형세가 위기일발이네
將軍計下自作圖	장군 계략을 내려 스스로 도모하지만
士卒不戰魂已奪	사졸들 싸우지 않고 정신 놓아버렸네
達嶼峰前陣如雲	달서봉 앞에다 구름처럼 진을 치자
洪海原頭往來絕	홍해 언덕 끝에는 왕래가 끊어졌네
天長地闊兩茫茫	하늘 멀고 땅은 넓어 둘 다 아득한데
解甲投衣生死決	갑옷 풀고 옷을 던져 생사를 결단했네
哀汝誰非父母身	애절한 너흰 누가 부모의 몸 아니리오
無辜同爲白刃血	까닭 없이 모두 시퍼런 칼날에 피 흘리니
烏鳶銜飛狐狸偷	까막솔개 물어 나르니 이리는 흠쳐 먹고
家室來收頭足別	가족이 와 수습하니 머리와 발 따로네
山川索莫草樹悲	산천이 삭막하여 초목도 비통해 하니

8) 정영석, 「16世紀 湖南地方의 倭變：明宗代 乙卯倭變을 中心으로」(朝鮮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1)와 宋正炫, 「乙卯倭變에 대하여(康津周邊을 中心으로)」(『호남문화연구』12, 全南大學校湖南文化研究所, 1982)를 참고.

9) 옥봉 백광훈은 을묘왜변 당시 達梁浦 戰鬪에서 숙부 白世禮(1505~1555)가 순절하는 가족사를 가졌다.

10) 白光勳, 『玉峯集』, 詩.

境落蕭條灰燼滅 마을은 쓸쓸하고 잿더미에 불씨만 꺼져가네
 <後略>

옥봉이 젊은 나이에 왜변을 목격한 처참함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달량성 앞에 있는 달서봉에 왜구가 진을 치자, 달량성 건너편 흥해고을 언덕엔 백성들의 왕래가 끊겼다. 성에서 장군이 방책을 내려 독전하지만, 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쩔 바를 몰라 전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살 궁리만 찾고 있다. 까닭 없이 시퍼런 칼날에 유린된 병졸들의 시신이 성을 가득 채우니 까마귀와 솔개, 이리 떼는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 마치 李白의 「戰城南」¹¹⁾에서 안록산 난 당시에 목도했던 ‘까막솔개 사람의 간장을 쪼아서 물어 날아올라 고목가지에 걸어두네’라는 참상과 흡사하다. 가족들이 와서 피붙이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만, 머리와 발이 따로 뒹굴어 찾을 수 없는 현장의 비참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참상은 70척의 왜구에 의해 노략질 당하던 현장이 국가 간의 전쟁 양상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재가 목격한 진도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피구록」에서 진도의 상황은 달량성이 함락된 13일부터 시작된다.

5월 13일. 맑음. 왜구가 먼저 일찍이 달량성을 3일이나 포위하여 함락시키자 섬사람들이 점점 바다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백성들의 바람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군수의 환진을 기대하고 밤에 구원병에게 알렸으나 이미 전멸되었다. 한 번에 성이 도륙을 당하고 왜적이 또한 이르니 섬 안은 놀라 깨멸되었다. 앞 항구에서 거룻배를 주어 소포항에 정박하였다. 새벽에야 지력산으로 들어갔다¹²⁾.

왜구가 진도에 침입하여 이 날 금갑성이 함락되었고, 진도군수 崔潏은

11) 李白, 「戰城南」. “<前略>烏鳶啄人腸 銜飛上掛枯樹枝<後略>”

12) 「入智力山 次簡齋韻」. “五月十三日 晴 倭寇先嘗達梁圍三日 垂陷 島人稍稍有出海者 予謂不可爲民望 且期郡守還鎮 夜報援兵已鑿 一城隨屠 賊且至矣 島中驚潰 予艇前港 檣素浦 未明 入智力山”

이에 앞서 어란진을 구원하려다가 패퇴하여 진도에서 탈출하였다. 따라서 소재는 이곳저곳 원병을 청했지만, 방도가 없어 謫所에서 피구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날 새벽 지력산으로 피신하는 소재의 모습이 「入智力山 次簡齋韻¹³⁾」 시에 잘 묘사되었다.

<前略>

兒童怨我遠	어린놈 내가 멀어짐을 원망하니
何不行少遲	어찌 조금 더디 가지 않으리오
奴疑淹日月	노비는 변란이 오래 갈까 의심하고
婢怕違毫釐	첩실은 조금이라도 멀어질까 근심하네
前仆後繼顛	앞에서 엎어지고 뒤에 이어 넘어지니
尙恨不巉巖	그래도 가파르고 험하지 않음을 한하네
有洞窈以深	동굴이 있어 그윽하고 깊으니
此欲安其危	이곳은 그 위태로움을 안전하게 하네
翳林胡亂嶼	가려진 숲에서 어지러운 섬을 엿보니
天闊浮脩眉	하늘은 넓어 다듬어진 눈썹같이 떠있네
日高衣裳晞	해가 중천이라 옷에 비취니
身上多皺肌	몸에는 모두 살가죽에 주름이네
共惜無苦李	모두 쓴 오이가 없음을 애석해 하고
吞爾孩口辭	아이고 라는 말만 삼킬 뿐이네
嚶嚶鳥相和	앵앵 새들끼리 화답하여
近對微吟髭	가까이 마주해도 읊조림 알아듣지 못하네

<後略>

왜변으로 적소의 근처에 있는 지력산으로 피구하는 모습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소재는 당시에 자녀와 첩실을 두었고 노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변 때문에 지력산으로 피구는 촌각을 다투고 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지력산이 깊숙하지 않아 혹 왜구에게 들킬까를 염려한다. 안전한 동굴을 찾아 몸을 숨기고, 새벽부터 오른 산길에서 고단함은 입에서 단내가 나고 ‘아이고’라는 한숨만 나온다. 혹시나 왜구에게 들킬까

13) 盧守愼, 『蘇齋先生文集』卷之四. 이하 蘇齋 시의 출전은 생략함.

작은 소리로 속삭이니 새소리만 더욱 크게 들릴 뿐이다. 소재가 식솔들과 함께 피구하는 상황은 진도 왜변의 실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피구생활은 24일 출도하는 날까지 계속되는데, 16일 지력사의 승방에서 쓴 「到智力寺」 시에 그간의 고통을 엿볼 수 있다.

霧雨西南合	안개비는 서남간에서 만나고
藤蘿咫尺迷	취닝쿨은 지척에 어지럽네
垂頭絲笠墊	고개 숙이자 명주갓 흘러내리고
舉足草鞋剗	발을 들자 짚신이 벗겨지네
磴哭緣求乳	비탈길 곡성은 젖을 찾기 때문이고
林噪爲失麪	숲속의 울부짖음 새끼를 잃어서겠지
僧房臥不寐	승방에 누웠어도 잠 못 이루는데
掛壁玉燈低	벽에 걸린 하얀 등불만이 작아지네

소재는 승방에서 왜변의 겪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안개비와 취닝쿨로 형상화된 현재의 상황은 내일을 내다 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재는 군졸처럼 絲笠과 草鞋[짚신]으로 차렸는데, 틈을 엿보는 상황이라 흘러내리고 벗겨진다. 비탈길 곡성은 어린애가 젖을 찾는 소리로, 숲속에서 울부짖는 새소리는 새끼를 잃은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재는 홀로 잠들지 못하는데, 등불이 작아진다는 것으로 피구의 고단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피구 생활 와중에 소재는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5월 18일의 「感歎」 시의 부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8일. 저녁에 비 내림. 산을 가려 바라보니 푸른 연기가 사방에서 일었다. 군수가 성을 버렸으니 무기와 군량미는 얼마나 간악한 백성에게 탈취되었을까를 생각하였다. 이에 스님 옥령지와 진손의 무리를 불러 의논하고 좌수 金甕·金盆과 아전 朴濶 등에게 편지를 보냈다. 바라옵건대, 나누어 지키는 것을 모여 계획하는 것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모두 병사를 의심하나 행차하면 적은 왜구를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곳 가까이에 몇몇 촌부가 쫓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끝내 알리지 못하

니 정말 개탄할 뿐이다¹⁴⁾.

소재는 지력사에서 군수가 없는 진도성의 상황을 살피면서 스님들과 함께 왜구에 항거하는 대책을 세워 좌수와 이방에게 전하려하였다.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그는 스스로 탄식하기에 이른다. 그날의 「感歎」시를 보자.

懦疲全乏兼人勇 여리고 늙어 온전히 남보다 뛰어난 용기 없고
 浮薄曾無盡己忠 들뜨고 경박하여 일찍이 내 충성 다함이 없네
 萬一淺謀誰取信 만에 하나라도 천박한 꾀 누가 믿고 취한다면
 只堪昭代棄材終 태평성대에 버려진 재주 종신을 참을 뿐일까

소재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는 작품이다. 그는 자신이 용기 없고 경박하여 충성을 다할 수 없는 사람임을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따라 준다면, 죽음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비록 절도 안치된 유배객이지만 관의 협조가 있다면 행동으로 왜구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소재는 군수가 버린 적거지 진도에서 왜구에 대항하고자 하였으나 기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도리어 왜구들이 점점 흉포해졌다. 5월 23일 소재는 노비 숙개가 출도를 권유하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출도를 결심하였다¹⁵⁾. 11일간의 진도의 피구생활을 정리하고 24일에 출도하였다.

①區區人事逆天時 구구한 사람 일 하늘의 때를 거스르니
 此夕湘纍欲竄歸 오늘 저녁 죄인이 도망하여 돌아가려네
 語盡柏亭溪送咽 말 마치자 동백정 시내 목메어 흐르고

14) 「感歎」. “十八日 夕雨 葦山而望 靑煙四起 念主守棄城 甲兵倉廩 幾爲奸民所取盡 乃召僧玉靈池晉孫輩議 馳書座首金甕金盆吏朴溫等 願與會謀分守 且多爲疑兵 幸而沮少寇 可矣 近此亦有一二村夫欲從者 此意何如 終不相報 良可慨而”.

15) 「決策出海」. “二十三日 奴叔介勸速出海 予謂賊鋒正銳 今住與行 安危等耳 顧不可坐受辱 汝言似也”.

眼穿松峴日沈輝 눈을 송현으로 옮기니 해가 지고 있네
 廚婆貯火堪蒸黍 찬모는 불을 갈무리하여 밥을 하고
 隣叟多情解把衣 이웃 늙은이 정이 많아 옷짐을 푸네
 明發碧波津外去 내일 벽파를 떠나 나루 밖에 나가면
 更於何地被重圍 다시 어느 땅에서 에워싸임을 당할까
 「決策出海」

②聖恩許以生 성은이 삶을 허여하였으니
 吾其敢輕捨 내 그 어찌 가벼이 버리겠는가
 未可汚於賊 왜적에게 더럽힐 수 없으니
 此行非苟且 이 번 행차는 구차함이 아니네
 昨日出山寺 어제 산사를 나오고
 今晨發旅舍 오늘 새벽 여관을 출발했네
 <下略>
 「宿黃原村舍」

①, ②의 시에서 유배객으로서 어쩔 수 없는 出島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①의 시는 출도하려는 소재의 마음과 함께 했던 이들의 진솔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소재는 자신을 상루(湘纍)로 형상화하였다. ‘湘纍’는 상강의 죄인으로 굴원을 가리킨다. 자신도 굴원처럼 바른말을 하다가 상강과 같은 진도에 유배되어온 충신일 뿐이다. 이러한 충신은 죄를 지어 절도안치 되었다가 왜변으로 인해 목숨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소재는 숨어 있던 지력산 지력사를 출발하여 동백정을 지나 자신의 배소가 있는 송현 고갯마루(현 진도읍 교동리 송현마을) 쪽을 쳐다보았다. 이러한 소재의 행동은 이곳으로 되돌아 올 수 없다는 생각이 배어있다. 벽파진에 도착하여 출도를 준비하던 소재는 적에게 포위를 당할 것을 걱정한다.

②의 시에서 소재는 임금이 나에게 목숨을 연명해 주었는데, 왜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배객의 출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소재의 출도 당 위성은 살아 있어 언젠가 돌아가서 임금에 충성한다는 것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

출도의 당위성을 노래한 소재는 23일에 출도를 감행하고, 24일에 벽과진을 떠나 해남 땅으로 나왔으니 왜구가 진도에 침입한 지 11일만이다. 이로써 절도 안치된 유배객 소재는 변란 중에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고 보존함이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적소를 이탈하였다.

3. 출도이후의 행적과 교유

소재는 절도 안치된 죄인이지만 왜변을 당하자, 스스로 당위성을 세우고 24일에 진도의 벽과진을 출발하여 삼지원을 거쳐 우수영에 도착하였다. 우수영에도 이미 우수사는 없고裨將과假將만이 지키고 있었다.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자 동행하던 이가 소재에게 ‘浮海’ 즉 바다를 떠돌자고 청하지만, 그래도 소재는 육지를 고집하였다. 날이 저물자 황원촌(황산면의 어느 마을)에 숙박하였는데, 황원촌도 왜구의 침입으로 시신이 온 들녘을 덮었다¹⁶⁾.

왜변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소재는 25일 당일에 藤山津(현 화원면 월내마을¹⁷⁾)에서 木浦를 거쳐 古鐵金里(현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어느 마을)에 이르러 어느 촌가에서 숙박한다. 26일에는 務安縣을 거쳐 함평 객관에 이르고 11일 동안을 함평현에 머물다 6월 6일에 나주성에 이른다. 8일에는 극락진(현 광주시 광산구 서창동에 있었던 나루)을 거쳐 광주성에 이

16) 「宿黃原村舍」. “<前略>城烏度山槽 路逢相識人 相辭手重把 奔走來爲誰 報賊輒成啞 處處焚盪餘 舉眼淚欲灑 往往敝屣棄 傳看怪趾蹠 登亭興亦盡 入舟憂未寫 午戾節度營 主者乃裨假 蒼皇無守意 且走惟倚馬 乞我囊中糗 傷我甕中鮓 同行請浮海 非計之得也 風波暴客夥 巖壑行人寡 督入黃原村 夜投茂林下 蕭蕭數間茅 寄宿借旁厦 款扉竟無磨 借飯就遺瓦 老衲爲施苦 亟去滅松炮 乃相與枕藉 魚魚而雅雅 沈吟獨病翁 性情哀未惹 昇平近百年 不虞夷猾夏 客兵才千挺 主屍蔽百野 嗟我子遺民 國家受天譴 武臣幸親上 謀臣盡衛社 吾囚亦何故 爲是栖栖者”.

17) 藤山津은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월산마을이나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월내마을로 추정된다.

르렀다가 10일에는 전북 순창군에 이른다. 12일부터는 강천사에 머물다가 21일에 옥과를 지나 광주에 이른다. 25일부터 증심사에 머물다 7월 3일에는 철포¹⁸⁾를 출발하여 8일 영암에 도착하고 11일에 월출산을 등반하고 도갑사에서 숙박한다. 12일에 석교원(현 강진군 성전)에 도착하여 머물다 15일에 해남에 도착한다. 16일에는 해남의 三村里社倉(현 삼산면 倉里)에 도착한다. 17일에는 松栢亭(현 삼산면 송정리)에서 머물다 19일에 벽과진에 도착한다. 이로써 67일간의 피구생활이 끝난다.

소재는 무안현에 도착하면서부터 다양한 인물들과 교유하였다. 그들을 분류하면, 처족, 관료, 호남문인, 사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과의 교유에 대한 천착은 당시 소재의 삶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을묘왜변에서 소재가 이처럼 먼 여정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소재는 을묘왜변 당시 영암성의 포위를 뚫었던 全州府尹李潤慶, 都巡察使로 나주에 머물렀던 李浚慶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다. 李潤慶(1498~1562)과 李浚慶(1499~1572)은 형제로 소재의 장인인 李延慶과 사촌간이다. 특히 이준경은 이연경에게 수학하여 소재와는 특별한 인연관계에 있었다.

이윤경과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5월 27일 소재는 함평에서 영암성의 전투에서 승리 소식을 듣고 지은 시 「靈巖圍解」의 부기를 보면, 영암성의 포위를 푼 장군이 전주 부윤 李潤慶의 힘이라고 하는 소식¹⁹⁾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牟陽遇偵卒	함평에서 척후병을 만났더니
云自浪山歸	영암으로부터 돌아온다 하네
殺賊百餘級	백여 급에 적을 살해했고
解城三匝圍	세 겹으로 둘러 성을 풀었네
皆由有李尹	모두 이윤경 부윤이 있었기에

18) 철포는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라는 견해와 서창이 ‘서창포>서포>세포>쇠포>철포’로 전이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19) 二十七日 晴 人皆曰 全州府尹李潤慶之力也.

竝著是恩威 임금의 위의를 아울러 드러냈네
 可謂粗安幸 어른의 안부 다행스럽다 하니
 應知大捷非 응당 알겠네, 대첩의 비참함을

소재는 함평에 머물면서 영암의 전투를 지휘하는 이윤경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임금의 위의를 드러내어 용감히 전투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영암성 전투가 치열하여 왜구의 목을 벤 것이 백여 급이고 성을 세 겹으로 포위하였으니 전투의 승리는 비참함을 응당 짐작할 수 있다. 승전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전투의 지휘관인 처당숙이 무사함에 더욱 기뻐하고 있다.

이연경과는 직접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소재가 6월 6일 나주성에 도착하자 李禮悅의 환대를 받았다. 이에열은 이준경의 아들로 소재와는 처남 매부간이다. 소재가 나주성에 이르러 쓴 「到羅州城下」시에는 이준경과 만나 여러 가지 슬픔을 이야기 한다. 소재는 “고인의 아우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슬픔만 이야기 하네²⁰⁾”라고 하여 고인이 된 장인 이야기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재는 처족들은 당시 전라도의 실세였다. 따라서 왜변으로 적거지에서 출도하여 생활하던 소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은덕을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당시 지방 수령들과의 교유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다고 추론된다.

무안현에서부터 적거지로 歸島하던 날까지 지방 현감들은 소재 일행에게 과분한 예우를 하였다. 무안 현감 崔遠決은 안마를 수습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고²¹⁾, 함평에서는 縣監柳應斗가 음식과 의복 및 잠자리까지 보살폈다²²⁾. 노비가 무안현에 구금되었을 때, 여행증명서와 현감의 서찰을 무안으로 보내 구제하였다²³⁾. 전라북도 순창군에 이르자 동방이던 순

20) 「到羅州城下」. “相看故人弟 爲話萬端傷”.

21) 「過務安縣」. “二十六日 晴 曉行務安 路逢騎士 數輩弓矢而駐 相詰久之 乃去 午至縣 縣監崔遠決拾鞍馬 坐南門下少酌 請登樓 復設酒食 且餽行借馬”.

22) 「寓咸平縣館」. “暮抵咸平縣 縣監柳應斗出接敘舊 飲食衣服之 館于客館之西別室”.

창군수 竹谷 林薈(1508~1556)가 나와 영접하였다²⁴). 이후 강천사에서 일주일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임회의 덕택으로 생각된다. 피구 중에 만났던 관료들은 소재와 이미 친분이 있거나 동방년이라 환대를 베풀었음을 소재의 작품에 미루어 볼 수 있다.

소재가 귀도길에서 해남 군수 南湖 邊協(1528~1590)과 만남은 관료와 교유의 특징을 시사하고 있다. 7월 15일에 쓴 「邊海南(協)索詩贈二律」을 보자.

理邑誰專美	읍을 다스리는 자 누구를 오로지 찬미할까
防邊我獨賢	방어사 변군이 내 유독 현명하지
晚聞常恨老	늦어감을 한한다고 늦게야 들었는데
一見便知全	한 번 보니 곧 온전히 알겠네
氣概論兵靜	기개는 병사를 논함에 정밀하고
風流愛士偏	풍류는 선비를 아낌에 기울었네
恂恂對樽俎	신실하게 술과 안주 마주하니
病目掃雲煙	병든 눈 흐리멍텅함을 씻어버리네

地利須乘勢	지리는 형세를 타야만 하고
機宜要待賢	기회는 현인을 기다려야 하네
睢陽昔陷沒	수양은 옛적에 함몰했지만
棠岳竟安全	해남은 끝까지 안전하네
前後主恩重	언제나 임금의 은혜 소중하고
西南軍望偏	서남간에 군의 신망이 기울었네
孤臣更相祝	고신은 다시 서로 축하하고
一節曠凌煙	오롯한 절개 능연각에 비추네

이 시에서 소재는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칭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변협은 해남을 끝까지 지키어 여러 고을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 막상

23) 「二奴追至 悲喜相兼」. “奴晚來 呈弟書 且曰 貴孫見拘務安 請行狀及書而去 夕與偕還”.

24) 「次淳昌郡」. “初十日 晴或雨 謫人留劇州不便 不可以兄弟之好爲解 發行潭陽 夕次淳昌 郡守林薈出見 小酌”.

만나 보니 그 소문이 헛되지 않고 기개와 풍류가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다. 지리가 아무리 이롭다고 하지만, 현명한 이가 있어 그것을 더욱 이롭게 하는데, 바로 변협이 그렇다. 그래서 호남의 서남간에 변협만한 인물이 없고,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를 표창하여 초상화를 걸어 두는 능연각에 이름을 올릴만하다고 끝까지 칭찬하고 있다.

변협에 대한 인물평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을묘왜변이 끝난 뒤에 南州驛의 벽에 걸린 시에는 “벼슬이 옮겨진 부사 변협은 간사한 신하로다²⁵⁾”라고 하여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공익의 『練藜室記述』에는 『寄齋雜記』를 인용하여 “조정에서 金澍를 싸움에 임해 실책한 것으로 과면하고, 이운경을 장려하여 승진시켜 김주를 대신하게 하고, 이듬해에 巡察使의 칭호를 더하였다. 邊協을 특진시켜 장흥 부사로 삼았다²⁶⁾.”고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소재는 후자와 같은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소재는 강천사에서 머물며, 옥과에서 환취당을 짓고 은거하던 동방년인 薛瑒과 徐鳳·趙珽 등 호남문인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思庵 朴淳의 부친인 六峰 朴祐(1476~1546)와 와 河西 金麟厚(1510~1560)의 시에 차운하여 읊은 시를 볼 수 있다. 당시에 육봉은 이미 사후 인물이었지만, 하서의 경우는 생존한 인물이라 소재 교유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和金先生韻」을 보자.

臣細猶同道	크고 작은 것 도가 한가지라지만
高卑詎一時	높고 낮음은 어찌 한 때이겠는가
恭承嘉惠久	삼가 은혜를 입은 지 오래인데
利見大人遲	이견대인하움이 더디네
蜂蠆何年滅	왜구들은 어느 날 멸할까
駑駘舊徑知	노둔한 말은 옛길만 아니
無因更進拜	또 나아가 인사드리지 못하고
只和金詩	다만 和金詩에 화답할 뿐이네

25) 李濟臣, 『淸江先生鯁鱗瑣語』, “乙卯湖南倭變 昇平日久 諸將多失律有詩 題在南州驛壁曰 <前略> 遷職邊倅(協)乃詐臣 監司(金澍)奈何昧圖策 <後略>”

26)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之十一, 「明宗朝故事本末」, 乙卯倭變條. “朝廷 以金澍爲 臨陣失措 罷之 獎諭李潤慶隆秩代之(明年加號巡察) 超拜邊協 爲長興府使(寄齋雜記)”

이 시는 하서 선생을 추앙하는 소재의 심정을 잘 표출한 작품이다. 道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나 작으나 한가지이지만, 그 공력의 높음과 낮음은 같지 않다고 하여 하서의 공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은혜를 입음이 오래라는 것은 학문에 대한 지도를 받았음이 오래되었음을 말한다. 당시에 소재는 하서를 만나지 못했다. 다만, 왜구들이 변란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나아가 인사드리지 못하고 화답시만 쓴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미 소재는 하서와 학문이나 시를 교류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소재는 1554년 『숙흥야매잠주해』를 탈고하여 퇴계에게 보낸 다음 퇴계의 논평과 함께 다시 주해를 하서에게 보내어 논변하고, 1560년 2월에 하서가 운명하자 「聞河西亡」과 「哭河西二十韻」을 썼다. 이처럼 소재는 하서와 더불어 학문과 시를 주고받는데, 이러한 교류는 바로 진도 적거시에 이루어졌다.

7월 들어 귀도길에 오른 소재는 나주에서 徐友良을 만나고 영암에서 李允良, 洪致文, 柳某, 崔慶昌, 尹剛元, 尹術 등을 만났다. 정읍현감으로 있던 이윤량(행적미상)과는 7월 8일 영암에서 만나 7월 16일 三村里社倉에서 헤어질 때까지 9일 동안을 함께 하였다.

이윤량은 소재가 당대 팔문장으로 알려진 孤竹 최경창(崔慶昌 1539~1583)과 호남의 당시풍 사종인 이후백(李後白 1520~1578)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을 것으로 추론된다²⁷⁾. 이후백은 삼당시인인 최경창과 백광훈에게 시를 가르쳐 호남의 당풍을 선도하게 하였다. 최경창에 대해 소재는 당대의 문장가로 평가하였다²⁸⁾. 아마도 최경창의 평가는 소재를 만나기 전으로 생각되며, 그 이후에는 최경창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소재 시 중에는 「崔正字慶昌携酒相看」라는 시가 있는데, 최경창이 사마시

27) 「登道岬寺 次韻子靜」. "十一日 晴 與子靜上是寺 寺甚輪奐 靜邀崔慶昌來 飲其酒同宿".

28) 許筠, 『惺叟詩話』, 「李達之詩自新羅以來法唐者無出其右」. "盧相見僧軸有孤竹及益之詩 題曰 當代文章伯 唯稱李與崔 蓋非溢辭也 仲兄亦言李之詩 自新羅以來法唐者 無出其右 嘗稱其中天笙鶴下秋霄 千載孤雲已寂寥 明月洞門流水在 不知何處武陵橋之作 以爲不可及已".

에 합격한 것이 1561년이고 문과에 합격한 것이 1568년이다. 시의 제목으로 보아 최경창이 正字라는 벼슬을 받았을 때에 지은 것이므로 피구 생활 이후에도 소재는 그와 지속적으로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소재는 삼당시인인 옥봉 백광훈과 최경창의 스승인 청련과 귀도 중에 잠시 만났다. 청련은 16세에 조모인 정부인을 모시기 위해 강진 작천에서 생활했으며, 24세에 강진 성전으로 옮겨 오직 정주학에 힘썼다. 따라서 1555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어서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기까지 강진에서 살았다. 7월 15일 이후에 지은 시로 「次韻季眞寄贈」이라는 시를 보자.

老眼非常變	늙은이 눈 비정상으로 변하여
清襟莫樂知	고결한 마음 즐거움 없이 사귀네
金蘭半日契	깊은 우정 만나절 만에 맺고
雲樹兩鄉思	이별은 두 고을에서 그리겠지
破屋床床漏	무너진 집 잠자리마다 비새고
沈痾證證危	불치병은 증세마다 위태롭네
須與幸毋死	잠깐이라도 무사하길 바라니
重肯與言詩	다시 함께 시를 말하며 즐기세

소재가 귀도 중에 石橋院(강진 성전)에 머물렀는데, 그때 청련을 만났던 기쁨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소재는 스스로 늙은이 눈이 정상적이지 않아 고결한 마음 없이 사람들을 사귀었다. 그러나 청련을 만난 만나절은 유익하여 서로 그리워하는 벗이 되었다. 안위를 당부하고 다시 만나 시를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이후 소재가 환로에 복귀하여 청련을 천거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소재의 피구 생활 중, 당대 호남의 사상적 거목이었던 하서와 삼당시인에게 당풍을 선도했던 스승 중 한 사람인 청련과의 교유가 이때부터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된다.

소재는 피구생활을 하면서 세 곳의 절에 머물렀다. 전북 순창의 강천사와 광주 의 증심사, 영암의 도갑사가 그것이다. 강천사에서는 7일, 증심사

에서는 4일, 도갑사에서는 1박 2일을 머물렀으니 12일 동안을 있었던 셈이다. 이때 만난 스님은 峻上人, 寶訓, 克浩, 惠遠 등이다. 귀도 중 7월 11일 도갑사에서 혜원이라는 스님의 시축에 차운한 「惠遠軸有六峯先生韻次贈」 시에 소재의 사문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爾住廬岡禮白雲 자넨 여산 언덕에 살면서 흰구름에 절하고
 我歸蓬島念朱文 난 봉래섬으로 돌아가 주자글 생각하겠지
 他年消得知巴鼻 훗날 점점 매인 운명을 알 수 있다면
 不惜靈珠乞與君 영주를 아끼지 않고 그대에게 주겠네

소재는 혜원 스님의 시축에 육봉 박우의 시가 있어 차운하여 스님과 자신의 공부법을 구별하고 있다. 스님은 廬岡, 즉 여산과 같은 곳인 월출산에 살고, 나는 봉래섬인 진도의 적거지로 돌아가 각자 자신의 공부를 하겠지만, 나의 운명을 알 수 있다면 영주라는 좋은 글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불학에서 추구하는 선학과 주자학의 구별을 공부 방법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²⁹⁾. 선학과 주자학의 수행방법상 차이가 있으나, 귀결점은 각자의 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소재가 사문을 인식하는 틀이다.

이처럼 소재의 피구생활은 유배객이라기보다는 한 유자의 유람생활이었다. 출도 후 고철금리까지는 행색이 초췌하고 생활이 구차하였지만, 무안현부터는 대부분의 현감과 군수들이 소재를 극진히 대우했다. 또한 사문에서의 장기 留宿, 호남 거유와의 지속적인 교류, 당풍을 선도했던 호남 문인 청련·고죽과 교류, 다양한 유생들과의 교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본인의 학문적 경지, 문학적 소양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나 처당숙인 이운경·이준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소재가 사문과 교류에서 도를 깨닫는 방법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29) 신향림, 앞의 논문. 112쪽.

4. 내적 자아의 상실감

을묘왜변으로 인해 절도안치 되었던 유배객 소재가 출도의 당위성과 출도 이후에 교류했던 인물들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 있는 삶을 간접적으로 보았다. 이제 소재의 「피구록」의 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가 추구했던 내적 자아의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재가 화자로 설정한 자신은 어떤 모습이며, 그가 현실적인 삶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적 자아가 추구하는 것을 추론하려 한다.

먼저, 소재는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까? 7월 15일 귀도 중에 자정 이운량에게 써 준 「子靜責無贈 遂次前韻」 시를 보자.

同里稱爲妄	동네에선 제멋대로라고 일컬지만
先公遇以賢	선공은 현인으로 맞이했지
吾於子何有	내 자네보다 무엇을 가졌겠는가
情與義俱全	정과 의가 온전하게 갖추어졌는데
語志誰非正	語志는 뉘라서 바르지 않아
論材各有偏	재주를 논함에 각각 편중이 있을까
亡羊十年跡	망양은 십 년의 자취요
炊黍一朝煙	취서몽은 하루아침 연길세

동네 사람들은 제멋대로라곤 하지만, 장인어른은 현명하다고 대우했다. ‘마음과 의리가 온전히 갖추어졌으니 내가 자정 자네보다 무엇을 더 가졌겠는가?’라고 하여 서로 간에 정리와 의리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였다. 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르지만 재주에는 편중됨이 있으니, 소재도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양을 잃은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지만, 삶이란 취서몽과 같이 인간의 부귀영화나 세월의 덧없다. 소재는 진도에 적거한 10여 년간의 깨달음을 자정에게 권면한다.

이처럼 소재는 현명하고 정리와 의리를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왜변의 참혹함을 몸소 체험하고 노래하였다. 아울

러 강천사에 있었던 6월 17일 「寶訓軸中 有河西韻 次贈」 시에서는 당시 방탕한 관리들의 실상을 읊고 있다.

嗟我避賊初	아, 내 왜적 피하던 처음
五月單闕年	을묘년에 오월이었지
煙火絕窮閭	연화가 궁벽한 마을에 끊겨지니
黽勉踏官筵	부지런히 관가 연회를 찾는구나
官知第色喜	관가는 다만 여색 즐길만 알아
吏來爭笑顛	아전들 다투어 웃다 넘어지네
捫虱歎當世	초탈한 사람 당세를 한탄하고
戈戟在後前	전쟁은 앞 뒤에 그대로 있네
蹙蹙靡所騁	고생하며 걷다가 넘어지는 모습
如老牛受鞭	늙은 소가 채찍을 맞는 듯 하네
形骸詎能安	몸이야 어찌 편안할 수 있으리
生還亦偶然	살아 돌아오는 것도 우연인데

이 시는 을묘왜변이 끝난 상황을 잘 묘사한 작품이다. 변란이 끝나자 관가는 여색을 즐길 줄만 알아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아전들은 얼굴에 함지박만한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소재는 문슬(捫虱)로 자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문슬”은 前秦 시기에 왕맹이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하였는데, 동진의 대장 桓溫이 관중으로 병사를 진격하자 가서 뵈고 천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눈질도 않고 이만 잡았다는 고사³⁰⁾에서 유래하여 ‘거리낌 없이 활동하면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표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소재는 이 문슬의 관점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한탄하고 있다. 즉 왜변이 아직도 여전한데, 관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 자신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우연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귀도의 막바지에 이른 7월 16일 해남의 삼촌사창에서 묵으며 지었던 「宿三村社倉」 시는 당시의 백성들의 삶을 회고하고 있다.

30) 『晉書·王猛傳』. 참조.

旅宿三村里 나그네 삼촌리에 묵으니
 時當七月秋 때가 칠월의 추수를 당했네
 干戈亂離禍 전쟁의 난리도 재앙이지만
 稻豆曠乾憂 농작물은 말라서 근심이네
 海月虫吟盡 바닷가 달밤 벌레 울음 그치고
 山風露氣收 산바람은 이슬 기운 거두었네
 安危古百濟 안위에 처한 옛 백제 땅에서
 萬慮倚晨樓 오만 생각에 새벽 누각을 기댔네

이 시는 변란과 시절의 고통을 겪는 백성들의 이중고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칠월의 추수 때가 되었지만, 왜변에 의해 친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농작물은 가뭄이 들어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한다. 달밤의 벌레 소리, 가을의 소슬한 바람에 소재는 잠을 못 이루고 누각에 기대어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있다.

왜변, 관료의 부패, 가뭄에 의해 고통 받는 백성들을 목격한 소재는 참담함을 느꼈다. 소재의 피구 행로는 내적으로 고단한 삶이 지속되고, 외적으로 시절의 피폐함에 절망을 느꼈다. 6월 17일에 강천사에서 「寶訓軸中有河西韻 次贈」라는 시에도 이러한 소재의 마음은 그대로 나타난다.

<前略>

夜月水明樓 밤에 달이 뜬 수명루에서
 暫可憂累捐 잠시 근심 쌓인 걸 버릴 만하네
 塵纓日三濯 때 묻은 갓끈 삼일 만에 씻고
 仰面雲在天 고개를 드니 구름이 하늘에 있네
 欲去仍躊躇 떠나가려다 거듭 주저하지만
 無人自日邊 서울로부터 사람이 없네
 長嘯且窮幽 긴 한숨이 또 무진장 깊어져
 藜杖僧相牽 지팡이 든 스님과 서로 끄네

강천사로 피구하여 심신의 피로를 회복한 다음에 지은 시로 보인다. 소재는 달밤의 수명루에서 잠깐 피구로 말미암은 초췌한 행색, 두려움에 제

대로 산천경계를 살피지 못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 이제 떠나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일변에는 사람이 없다. 일변은 태양 부근이라는 뜻으로 태양은 제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궁중, 또는 서울을 의미한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은 임금의 사령을 소지한 사람이리라. 기대감에 설레다가 실망을 하며 한숨짓는다. 스님과 서로 끌어당김은 소재가 스님과 담소를 나누며 마음을 위로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처럼 소재의 내적 자아가 추구하는 것은 해배의 기다림이라고 생각된다.

7월 9일 월출산 부근에서 홍치문을 만나 자미꽃 아래서 취해 읊은 「洪致文請賦紫薇醉書」 시에 소재의 내재적 자아의 일면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罇酒于今十載逢	지금 동이 술로 10년 만에 만나
紫薇花下醉衰翁	자미꽃 아래서 늙은이 취하게 하네
明朝憔悴江南客	내일 아침 초췌하게 강남 유배객이니
百日何曾一日紅	백일에 어찌하여 하루만 붉었겠는가

홍치문은 소재에게 자미를 읊기를 청했다. 자미화는 백일홍으로 흔히 남도 지역에서 배롱나무를 가리킨다. 이는 당나라 때에 中書省에 백일홍을 심었던 데서 유래하여 흔히 중서성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紫薇는 紫薇星으로 북두성의 북쪽에 있는 별이며 천자가 거처하는 대궐을 의미한다. 소재는 친구의 권유에 술기운을 빌어 소재 자신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기구에서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 동이를 술을 마셨고, 승구에서 자미꽃 아래서 늙은이를 취하게 했다고 언명하고 있다. 소재는 자미꽃을 확장시켜 내일 아침에도 또다시 유배객인 자신을 백일홍에 비유하였다. 즉 백일홍이 피어 시들 때까지 늘 붉은 것처럼 자신의 붉은 마음 즉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소재가 피구 생활 중, 시절에 대한 인식 즉 왜변, 관료들의 부패상, 가뭄 등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면서 임금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랐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거지로 돌아가는 아쉬움을 취중에 토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재가 7월 19일 「피구록」의 마지막 시로 귀도하여 쓴 「題碧波亭檻」을 보자.

客有避寇盜	유배객이 왜구 노략질을 피했다가
遑遑歸島囿	허둥지둥 영어의 섬으로 돌아왔네
朝過赤良院	아침에는 적량원을 지나고
午上碧波亭	오후에는 벽파정에 올랐네
邑破關梁在	고을은 파괴되었어도 포구는 그대로요
氛迷日月冥	기운 혼미하여 해와 달도 침침하네
津邊數杯酒	나룻가에서 몇 잔의 술을 마시며
長笑古人醒	오래도록 깨어 있는 고인을 비웃네

이 시에서 소재는 피구의 생활을 정리하며 소회를 노래하고 있다. 유배객으로서 왜변을 피해 진도의 적거지를 떠났다가 다시 허둥지둥 무언가 쫓기는 듯한 모습[遑遑]으로 돌아왔다. 이는 경련에서 혼미한 시대에 대한 아쉬움의 토로와 직결된다. ‘邑破關梁在’라 하여 표면적으로 ‘고을이 파괴되었으나 벽파의 관문은 그대로요’라 읊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도[邑破] 어진 자는 여기에 그대로 있다[關梁³¹]在]라는 의도를 표출하였다. 그렇기에 下句에서도 ‘氛迷日月冥’라 하여 방향감 상실로 이어진다. 방향감 상실은 미련에서 혼자 벽파정에 앉아 술을 마시며 ‘깨어 있는 고인[古人醒]’인 굴원을 비웃고 있다. 소재가 출도하면서 스스로를 ‘湘纍³²’로 대별되는 굴원으로 형상화하였지만, 이제는 깨어 있을 수 없는 자신을 향해 비웃고 있다. 이는 당시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소재 자신의 내재적 지향점의 상실감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소재의 「피구록」에는 왜구의 참상, 관료의 부패, 가뭄으로 인한

31) 『楚辭』중, 宋玉의 「九辯」에 “관량이 막혀 통하지 않음이며(關梁閉而不通)”라 하여 關梁은 ‘어진 자가 등용되는 길’을 말한다.

32) 「決策出海」. “區區人事逆天時 此夕湘纍欲竄歸 …<下略>…”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그 시속의 화자는 ‘湘纍’로 대별되는 굴원과 같은 자세를 가진 신하이다. 바로 시의 화자인 내적 자아는 굴원의 逐客의식을 형상화하여 해배의 바람이 지향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소재는 내적 자아의 지향점을 잃고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

5. 결론

조선조 중기는 일반적으로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으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이 일어난 사화기였다. 사화가 계속되자, 수많은 문인과 학자 및 관료들이 유배객으로 절도안치, 유리안치 되었다. 이들 중에는 평생을 적거지에서 살다 죽거나 다행히 聖恩에 힘입어 다시 환로에 나아갔다. 19년간의 진도 유배객으로 살았던 소재 노수신은 선조의 성은을 입어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다.

소재가 진도의 유배객으로 생활하면서 1023수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시를 썼다. 이 중에는 당시의 삶의 태도와 지향점을 엿볼 수 있거나 진도의 풍습을 고구할 수 있는 작품이 많다. 그러나 날짜와 날씨까지 기록한 일기형식으로 자세한 기록을 남긴 것은 유독 「피구록」 뿐이다. 이 기록은 유배객이 변란을 당하여 적소를 이탈하는 과정과 행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재는 왜 행적을 기록했을까?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절도안치 된 유배객의 무단이탈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증거물이라고 생각한다. 즉 왜구에게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고 보존함이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적소를 이탈에 대한 疏文의 기능이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왜구의 참상, 관료의 부패, 가뭄으로 인한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을 임금에게 알리고 신하된 자로서 충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소재의 피구 생활이 유배객의 유량이라

기보다는 한 유자의 유람생활에 방불하였다. 이는 본인의 학문적 경지와 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작용하였지만, 처당숙인 이윤경·이준경이라는 배경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소재는 관리들에게 환대를 받고, 사문에서 장기간 留宿할 수 있었고, 호남 거유인 하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당풍을 선도했던 청련과 고죽 등과 교유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소략한 논의는 '벽과진-황원-藤山津-木浦-古鐵金里-務安縣-함평현-나주성-극락진-광주성-순창군-강천사-옥과-광주-철포-영암-석교원-해남-三村里社倉-松栢亭-벽과진'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이는 당시의 전라도 서남지역에서 광주로 순창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은 당대의 교통로를 복원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낱낱의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盧守愼, 『蘇齋先生文集. 1-2』, 景仁文化社, 1998.
- 盧守愼, 『(影印標點)蘇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35, 民族文化推進會, 1990.
- 김 호, 「蘇齋 盧守愼의 病床 기록 『政廳日記』」, 『문헌과 해석』 통권 13호(겨울), 2000.
- 김광순, 문경현, 최승호, 「蘇齋 盧守愼 研究 -文學,政治,思想을 中心-」, 『퇴계학과 한국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원, 1989.
- 徐守鏞, 「蘇齋 盧守愼 詩 研究」,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4.

- 宋正炫, 「乙卯倭變에 대하여(康津周邊을 中心으로)」, 『호남문화연구』 12, 全南大學校湖南文化研究所, 1982.
- 신태영, 「盧蘇齋의 詩 研究」,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7.
- 沈載祐,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國史館論叢』 제92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 辛香林, 「盧守愼 詩에 나타난 思想 研究」,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 李承和, 「蘇齋 盧守愼의 漢詩研究」, 檀國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영석, 「16世紀 湖南地方의 倭變 : 明宗代 乙卯倭變을 中心으로」, 朝鮮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1.
- 조희창,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蔡龍福, 「소재 盧守愼의 思想과 學問態度」, 『韓國의哲學』 20,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1992.
- _____, 「소재시에 있어서 초세경계에의 지향」, 『文化傳統論集』 1, 경성대학교부설향토문화연구소, 1993.
- _____, 「蘇齋 盧守愼 詩의 研究」,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3.

투고일 : 2012년 1월 4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A study on Sojae Nohsoosin's 「Pigoorok」

Park, Byung-ik

Pigoorok, written by Sojae Nohsoosin, is a compilation of 47 poems under 44 titles which were included in his 4th book's collection of works. The contents span from a poem titled 'Going to Jiryek Mt, use Ganjae's rhyme for composing' through a poem titled 'Writing on the pole named Beokpajeong'. All the poems and records introduced here relate to Sojae Nohsoosin's 67 days whereabouts of life and his thoughts. The Pigoorok compilation was written between May 13, 1555 and July 19, 1555, concurrent with the onset of the Eulmyo Japanese Invasion.

Conflict and circumstance entrap Sojae into a situation of having to flee the island of Jindo, just 11 days after the Eulmyo Japanese Invasion. After efforts to repel the Japanese advancement fail, Sojae determines that the preservation of his life is the ultimate act of fidelity he can show towards his King. Effectively banished, he finally leaves the island of Jindo.

His journey of sheltering and concealment from the Japanese raiders continued throughout various regions including Jindo, Haenam, Mokpo, Muan, Hampyeong, Naju, Gwangju, Soochang, Okgwa, Gwangju, Yeongam, Seokgyowon, Haenam to Jindo. During his travels, he associated with various group of people. It is considered that his relationships with Lee Yun Gyung and Lee Jun Gyung, relatives of his wife, were especially helpful to him because of their actual influence in

Jellado. Additionally, Sojae reaped the benefits of kind treatment by many bureaucrats named Hyengam, or Goonsoo. Throughout Pigoorok, the reader receives a clear depiction of Sojae's life at this time and his extended stay within a Buddhist temple. His associations include respected Confucianists, friendships with Cheongryeon and Gojook and great writers from the Jeolla province, whose style is peppered with that of 'Old China's' Tang Dynasty.

From analysis of Sojae's works, we can suppose that he wanted to be a loyal retainer and confidant just like Ch'u Yuan (a Chinese politician and writer), after realizing the horrors of the Japanese invasion, bureaucratic corruption and the suffering agony of people from poverty and drought. Sojae's inner struggle, between his desire to regain an esteemed governmental position and the conflict it poses with personal goals, depicts for the reader his sense of both helplessness and loss.

Key words : Nohsoosin, Jindo, Pigoorok(避寇錄), Eulmyo Japanese Invasion